

암환자 위암·폐암·갑상선암 順

전남대병원 최근 10년간 실태 분석 … 자궁암·폐암 크게 줄어

광주·전남지역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완치율이 낮은 3기와 4기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 등이 지난 1998년~2007년 10년간 등록한 암환자 관련 자료를 모아 최근 발간한 '전남대병원 암등록 보고서'(1998~2007년)에 따르면 '5년 생존율'의 연평균 상승률은 1.4%였으며 이중 3기 환자의 생존율은 매년 2.64%나 뛰었고, 4기 환자는 1.62%씩 올랐다.

10년간 암 환자 5만165명 가운데 발생 부위별로는 위암이 7천308명(14.6%)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암이 5천683명(11.3%), 갑상선암 5천241명(10.4%), 간암 4천673명(9.3%), 대장암 4천624명(9.2%) 등의 순이었다.

발생률이 높아진 암은 갑상선암이 151건에서 1천30건으로 10년 새 무려 7배 가까이 늘었으며 위암은 348건에서 1천181건으로 3배, 간암 244건에서 702건, 폐암 352건에서 835건 등이었다. 반면 자궁경부암은 전체 등록건수의 9.1%에서 4.4%로, 폐암은 13.0%에서 10.5%로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담배 끊읍시다" 광주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8일 '보건의 날'을 맞아 전남대 후문 주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와 함께 지역별 암환자 등록은 거주 인구수와 비례하는 양상을 보여 ▲광주는 북구 7천418명, 서구 4천 866명 ▲전남은 여수 3천386명, 순천 2천791명, 목포 2천642명 등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남자의 경우 65~69세(4천949명), 여자는 45~49세(2천645명)에서 각각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남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암환자는 진단 이후 평균 3.4회 입원을 하며, 누적 입원일수는 31.3일이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일반고 영·수, 기초·심화과정 허용

학점제 도입도 추진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반계 고교의 영어, 수학 과목에 학습 결손 학생을 위한 기초과정과 우수 학생을 위한 심화과정을 추가로 개설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최소한의 학업성취 기준이 미련돼 이에 도달해야 졸업할

수 있고, 학점제도 도입된다.

교과부는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공모를 거쳐 교과교실제 학교, 자율형 공·사립고, 기숙형 고교 등을 위주로 시범학교 60곳을 지정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진단평가 등을 거쳐 교육과정을 따라잡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학습 결손 학생을 위해 '수학의 기본', '영어의 기본' 등 기초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고급 수학', '심화 영어' 등의 심화과정을 만들어 수준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석차등급은 기재하지 않고 '이수' 사실만 기록한다. /연합뉴스

홍도는 철새 터미널

동남아서 겨울 지난 30여종 북적

강남 갔던 제비 등 철새가 속속 남도로 복귀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철새들이 홍도를 통과, 본격적으로 한반도로 날아들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홍도는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철새들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어 불철 철새이동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철새연구센터도 이곳에 들어서 있다.

4월 초 현재 홍도에는 봄맞이 철새의 선발대격인 후투티, 종다리, 제비, 알락할미새, 직박구리, 흰매지빠귀, 휘파람새 등 30여종이 찾아오고 있다.

이들 철새는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겨울을 보내고 우리나라, 일본 등지에서 번식하는 대표적인 여름철새로 우리나라에는 보통 4~10월 동안 머문다.

철새연구센터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철새들의 불철 도래시기를 조사한 결과, 시기는 종(種)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종별 도래 순서는 매년 비슷한 것



후투티



말락할미새

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연구원철새연구센터 채희영 박사는 "본격적인 철새 도래가 진행되면서 하루에 60~70마리의 철새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가로지 형태의 센서를 채우고 있다"며 "철새 이동 시기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문구점 목걸이·팔찌 등

장신구서 중금속 검출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 등에서 팔리는 일부 어린이용 목걸이와 팔찌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주의가 요망된다.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용 금속 장신구 20종을 대상으로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7종에서 니켈이, 2종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피부 접촉에 따른 중금속 노출량을 계산한 결과, 니켈은 4종, 카드뮴은 2종에서 일일 허용 수준을 초과해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켈과 카드뮴 모두 일일 허용 기준치보다 많이 나온 제품도 1종 있었다.

이번 위해성 평가는 작년 2~12월 세정제, 화장품, 문구류, 학용품, 그림책, 색종이, 크레파스, 금속 장신구 등 어린이용 제품 150종에 포함된 중금속과 유해 화학물질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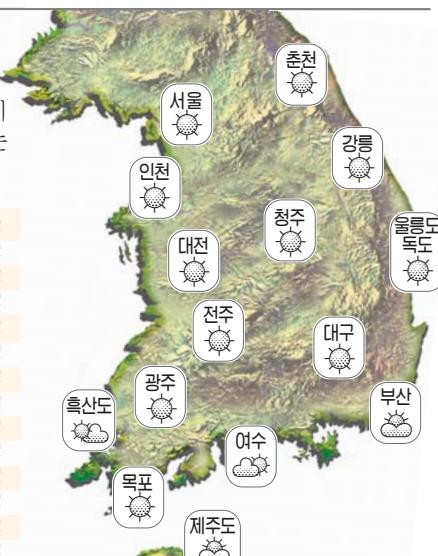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롭 06시 09분
해진 19시 00분

달롭 03시 11분
달진 14시 13분

완연한 봄 날씨

해상에 짚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다.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서해 남부	일비다	남~남서	0.5~1.0m	낮	민비다	민비
남해 서부	일비다	남동~남	0.5~1.0m	낮	민비다	민비
남해 남부	일비다	동~남동	1.0~1.5m	낮	민비	민비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11:01	23:17	03:58
남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16:45		
남해 서부	일비다	남동~남	1.0~1.5m	06:27	12:34	--:--

◇주간날씨

날짜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날씨	최저/최고	10/19	13/17	12/16	8/13	4/13

왕상을 비롯, 금, 은, 동상 각 1명, 장려상 7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최고 2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법원은 또 오는 19일에는 광주지역 2개 고교를 선정해 특정 학년 모든 학급 교실에 법관이 찾아가는 법교육 강연행사를 열 계획이다.

광주고법은 '법의 날'인 오는 25일 광주 살레시오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도전, 법을 왕' 행사를 연다. 법원은 TV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의 진행 방식을 차용해 광주 각 고교에서 주천한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50분당의 법률 상식 문제를 출제한다. 대회 참가 학생들에게는 법률

/최경호기자 squeeze@kwangju.co.kr

법의 날 '고교 법률왕' 뽑는다

광주고·지법, 고교 특강도

법원이 '제47회 법의 날'을 맞아 '고교 법률왕 선발대회'와 '고교 방문 특강'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연다.

광주지법은 '법의 날'인 오는 25일

광주 살레시오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도전, 법을 왕' 행사를 연다.

법원은 TV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의 진행 방식을 차용해 광주 각 고교에서 주천한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50분당의 법률 상식 문제를 출제한다. 대회 참가 학생들에게는 법률